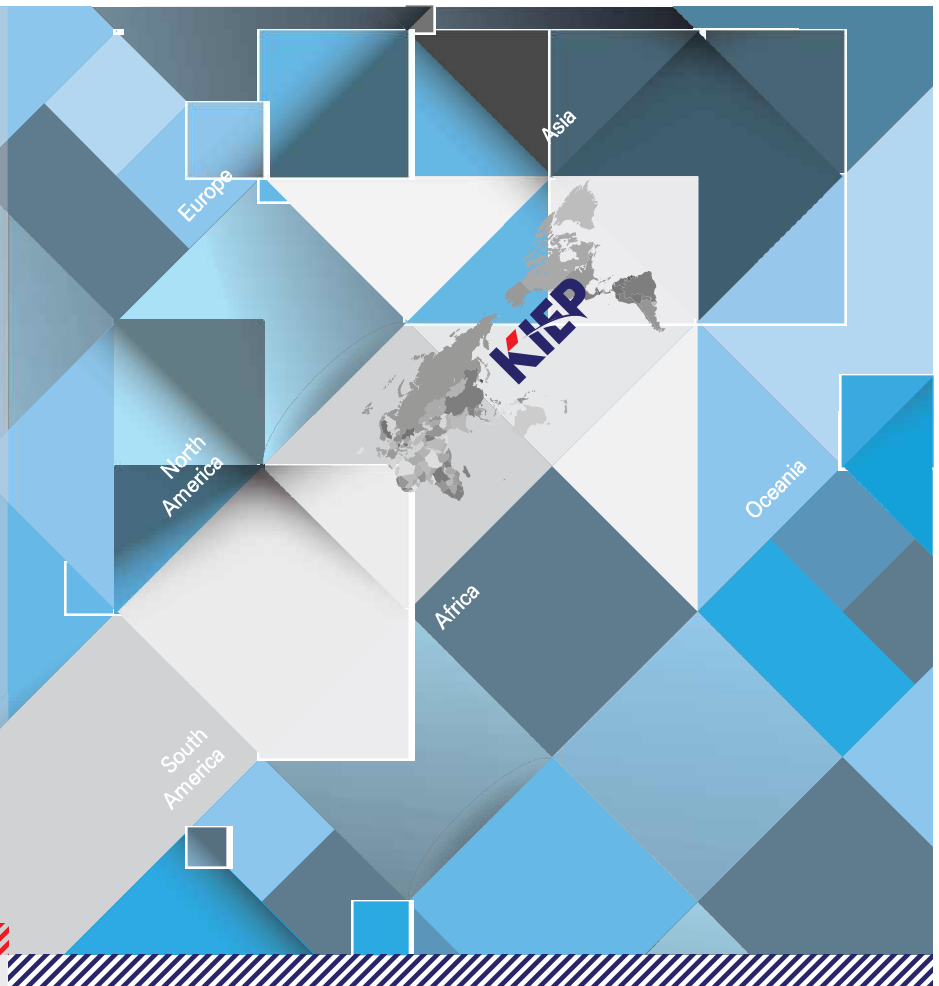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7-03

2017년 9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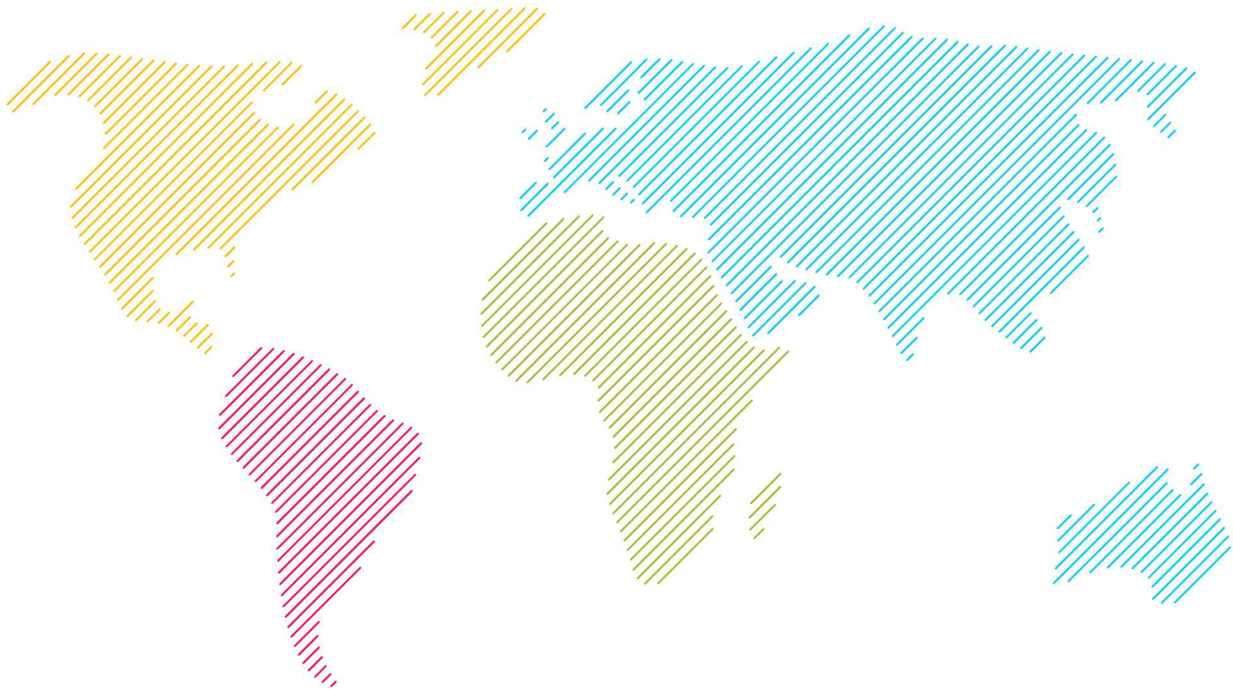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최유정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요약

- ▶ [검토 배경] 2017년 8월 북한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에서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 제재였으나, 제2371호와 제2375호를 포함한 최근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잇따른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한 수출급감에도 불구하고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대북제재의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현황]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전년동기대비 소폭(-0.8%) 감소하였는데,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축소, 대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수입이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북한 대중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은 국제사회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북한의 품목 다각화 단기적 성과 부진 등임.
 - 북한 대중 수입 급증의 주요 요인은 기저효과, 대북제재의 영향이 수출입에 반영되는 시차, 북한 내 기축적된 외화를 활용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안정 도모 등으로 볼 수 있음.
- ▶ [결론 및 시사점]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와 제2375호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무연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의 수출판로가 모두 폐쇄됨에 따라 북·중 무역은 단기적으로 급감이 불가피
 - 지난 8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는 무연탄뿐만 아니라 철광석, 수산물 등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급감을 상쇄하던 품목의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하반기 북·중 무역의 급감은 불가피
 -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에서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까지 금지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되었음.
 - 북한은 해외노동자 파견 등 봉사무역 확장을 통한 외화벌이 채널 다각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거나 해외노동자의 신규 파견이 불가하므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닌 다른 지하자원을 수출하면서 수출품목 다각화를 시도할 것이며, 이들 품목의 실적이 향후 북·중 무역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차 례

1. 개관
2. 북·중 무역 동향
3. 수출입 변동의 주요 요인
 - 가. 북한의 대중 수출 급감 요인
 - 나. 북한의 대중 수입 급증 요인
4.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가. 주요 수출품목
 - 나. 주요 수입품목
5. 결론 및 전망

1. 개관

■ 2017년 8월 북한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에서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8월 5일)의 특징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철·납·납광석·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및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파견을 제한하는 것임.
-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9월 12일)는 섬유 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유류 수입의 약 30%를 차단(연간 200만 배럴 이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 제재였는데, 제2371호와 제2375호를 포함한 최근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최근 잇따른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인한 수출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대북제재의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2017년 상반기(1~6월)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을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월별 수출입 추이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함.

-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2014년 이후 9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북·중 무역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을 분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한편 최근 언론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이 원유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근거로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하는 지원국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북·러 교역규모로 미루었을 때 이는 현실성이 부족(표 1)

- 2017년 상반기(1~6월) 북·러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73.0%, 2015년대비 36.5% 증가하여 북·러 간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17년 상반기 북·러 무역규모는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규모의 2.4%밖에 안 되는 수준이며,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절반의 2.0% 수준임.¹⁾

1)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규모는 KITA 통계,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KOTRA 통계, 2017년 상반기 북·러 무역규모는 러시아 세관통계를 활용함.

표 1. 북한의 대외무역 및 북·러, 북·중 무역 총액(2017년 상반기, 1~6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금액	비고
북·러 무역총액(2017년 상반기, 러시아세관)	61.26	-
북·중 무역총액(2017년 상반기, KITA)	2500.59	원유 미포함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KOTRA)의 1/2	3028.22	원유 포함

주: 일반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50만 t의 원유를 원조나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해관통계에서는 이를 북·중무역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KITA 통계는 북·중간의 원유 거래를 누락하고 있으며, KOTRA는 자체적으로 이를 반영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자료: 러시아 연방세관; KITA; KOTR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북·중 무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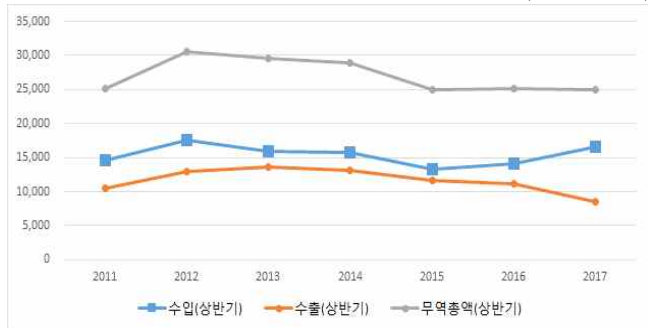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1~6월) 북·중 무역은 25.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소폭(-0.8%) 감소하였음.²⁾

■ 2017년 2월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 의거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축소(8.4억 달러)된 반면, 수입(원유 제외)은 16.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여 수출입 추이가 대조된 양상을 보임(그림 1).³⁾

-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월까지의 전년대비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3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대중 수입은 2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2).

그림 1.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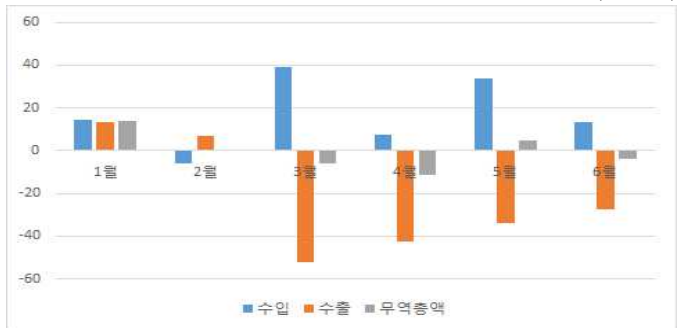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북한의 대중 무역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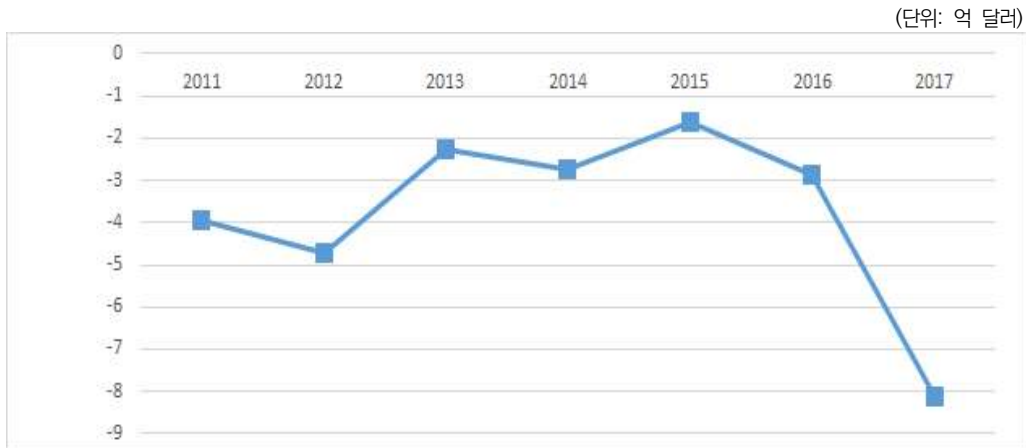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북·중 무역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KITA에서 2016년 해당월에 발표한 북·중 무역통계와 2017년 8월 현재 중국해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6년 월별 북·중 무역통계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임. 본 연구에서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KITA 통계를 활용하여 북·중 무역을 분석하였음.

3) 중국의 북한산 석탄 금지령이 실행된 후 3~5월 북한산 석탄의 대중 수출량은 전무함.

- 수입 증가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상품수지(원유 제외)는 8.1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2.8배(5.2억 달러 증가) 이상 증가하여 역대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그림 3.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추이(상반기)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수출입 변동의 주요 원인

가. 북한의 대중 수출 급감 요인

- [대북 수출제재] 2017년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는 중국이 지난 2월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에서 기인함. 석탄은 최근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
- 중국은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일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통계가 0을 기록함에 따라 중국이 결의안을 실제로 이행 중인 것으로 보임.
- [품목대체 성과 부진] 북한은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광물자원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철광석 밀어내기 수출과 수산물 수출증가를 통해 수출급감효과를 일부 상쇄했으나, 모두 만회하는 데는 실패하였음.
- 최근 북한의 신규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던 의류품목의 수출이 수출 금액과 증가율 측면에서 전년동기 대비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수출 급감의 한 원인임.

나. 북한의 대중 수입 급증 요인

■ [기저효과]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나, 그 규모가 2014년 상반기 수입 규모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규모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2017년 상반기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5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6% 급감한 후 2016~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된 수치임.
- 2017년 상반기 수입규모는 2014년 동기대비 4.7% 상승, 2012년 동기대비 6.0% 하락한 수치임.

■ [수출입 증감의 시차] 북한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북제재로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북한의 수입 감소 여부는 수출급감에 따른 외화수급 감소에 영향을 받는데 그 효과는 정치·경제적인 이유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정치적인 요인의 경우, 수입량은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여,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이기 위함일 수 있음.
- 경제적인 요인의 경우, 북한은 대중 수입품목을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내부 생산기술 및 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입 규모를 즉각적으로 축소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북한 내 외화 축적] 북한 내부에 외화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있다면 수출급감으로 인한 외화수급 감소가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시간을 연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

- 북한은 1991~2012년 중 약 200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자본수지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약 20억 달러 이상의 외화수급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은 연간 약 1억 달러 이상의 외화수급 흑자를 기록하여 그간에 축적된 외화가 존재함.⁴⁾

■ [임가공무역 증개]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 3순위는 '인조펠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이며, 이는 의류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입일 것으로 추측됨.

4.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가. 주요 수출품목

4) 북한의 서비스수지에는 관광수입과 입어료 등, 소득수지에는 식당 등 해외무역지사수입과 해외파견노동자 임금 수입 등, 자본수지에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양허성 차관 및 해외 투자금액 등이 포함됨(장형수 2013).

- 대북제재에 따라 무연탄을 포함하고 있는 HS27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철광석·수산물 수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의류품목(HS62, HS61)은 전년대비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실적(HS2단위, 2014~17년 상반기)

(단위: 천 달러, %)

	분류		2014(1~6월)		2015(1~6월)		2016(1~6월)		2017(1~6월)	
	품목	HS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제외)	62	267,779	44.2	226,528	-15.4	274,907	21.4	227,479	-17.3
2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	577,855	-23.1	572,630	-0.9	488,087	-14.8	224,301	-54.0
3	광·슬래그·회	26	169,428	-5.4	96,758	-42.9	102,284	5.7	141,150	38.0
4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3	40,912	79.2	42,108	2.9	47,449	12.7	89,594	88.8
5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뜨개질 편물 적용)	61	58,017	36.1	80,038	38.0	69,669	-13.0	41,937	-39.8
수출총액			1,310,581	-3.9	1,171,720	-10.6	1,116,213	-4.7	844,428	-24.3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무연탄] 무연탄이 포함된 광물자원(HS27)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4%나 감소하였으며, 북한산 무연탄(HS270111)의 대중 수출액은 3월 이후 0을 기록하고 있음.

-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후(2016년 3월) 4개월간 전년동기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나,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간 평균 성장률이 약 60%에 달하였음.
- 그러나 중국이 2017년 2월 20일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전면금지를 선언한 이후 3월 통계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이 0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4.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상반기)

(단위: 천 달러)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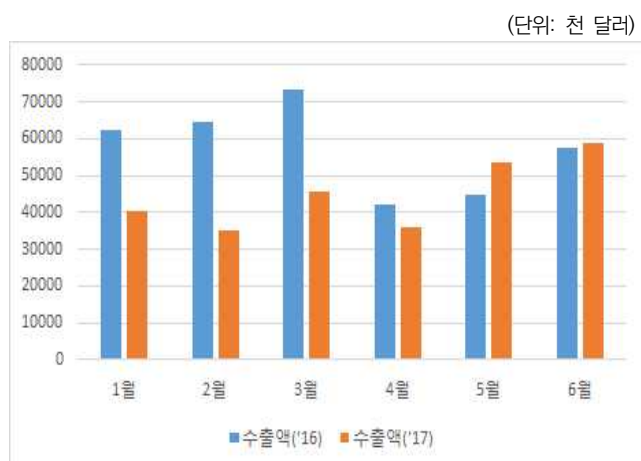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의류] 2017년 상반기 의류품목(HS61, HS62)의 수출액은 약 2.7억 달러로 전년대비 21.8% 감소하였으나, 처음으로 광물자원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였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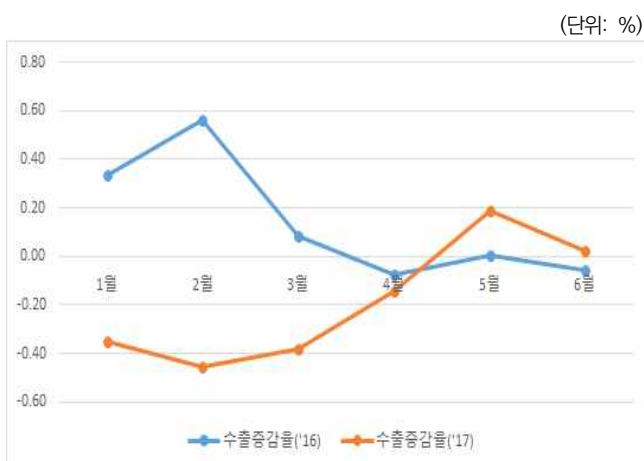
- 1~4월 북한산 의류품목의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이나, 5월부터는 점차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그림 6.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액(상반기, HS61+HS62)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증감률(상반기, HS61+HS62)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철광석] 2017년 상반기 철광석의 국제시장 가격이 급증하자 북한은 3월까지 낮은 가격을 토대로 철광석 물량 공세를 펼쳤으나, 5월 들어 북한산 철광석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을 터치하면서 철광석 수출도 점차 감소함.

-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14~15),⁶⁾ 2016년 가격경쟁력을 일부 회복하면서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음.
- 2017년 상반기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52.2% 증가하였으며,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141.1%만큼 증가하였음.
- 1~4월 북한산 철광석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335% 증가하였으나, 5월 들어 증가율이 33% 하락한 후 6월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5) 의류품목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감률은 KITA 통계와 중국해관통계(2017년 8월 29일 현재 조회) 중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임. 두 통계 모두 2017년 상반기 의류품목(HS61, HS62) 수출액을 약 2.6억 달러로 집계하고 있지만 이는 KITA 통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18.6% 감소한 것으로, 해관통계에 따르면 26.8% 증가한 것으로 보임.

6) 최장호, 최유정(2016), p. 10.

그림 8.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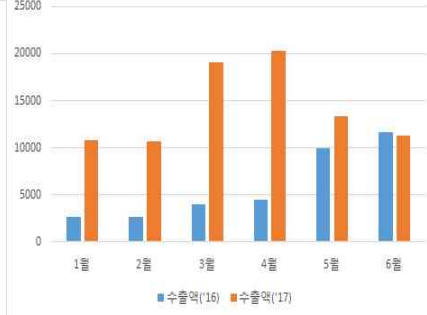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자료: KITA; Indexmundi.

그림 9. 2016~17년 철광석 수출액

(단위: 천 달러)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0. 철광석 수출증가율

(단위: %)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산물]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88.8%나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 수출 손실분의 일부를 회복하였음.

그림 11.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2. 북한의 대중 수산물 증가율

(단위: %)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수입품목

■ 2017년 상반기 북한의 5대 수입 품목의 수입금액은 모두 증가하였음(표 3 참고).

- 대중 수입 1위 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HS85)인데, 전년동기대비 30.7% 상승하여 2014년 수준을 회복하였음.
- 2위는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으로 전년동기대비 16.3% 상승하였음.
- 3위는 인조필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HS54)으로 전년동기대비 55.5%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류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입일 것으로 추측됨.
- 4위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으로 전년동기대비 29.8% 상승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5위 품목에서 4위로 부상하였음.

- 5위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HS87)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9% 상승하였음.

■ 그 밖에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에 있어 특이한 점은 △ 수산물(HS03)의 수입이 전년대비 101.2% 증가 △ 의류(HS61)의 수입이 상반기 내내 40%를 상회한 것임.

- 의류품목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① 해당 산업에서 임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늘어났거나, ②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개선 및 시장 확산에 따라 해당 품목의 소비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표 3.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 상반기 실적(2014~17년 각 연도 상반기)

(단위: 천 달러, %)

	분류		2014(1~6월)		2015(1~6월)		2016(1~6월)		2017(1~6월)	
	품목	HS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전기가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169,718	61.8	151,010	-11.0	135,214	-10.5	176,787	30.7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141,250	24.8	107,857	-23.6	117,029	8.5	136,127	16.3
3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	87,109	26.7	72,318	-17.0	79,321	9.7	123,365	55.5
4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82,606	48.4	76,028	-8.0	85,505	12.5	110,951	29.8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84,399	-30.0	91,686	8.6	99,276	8.3	103,121	3.9
수입총액			1,582,178	-0.6	1,332,885	-15.8	1,403,908	5.3	1,656,163	18.0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결론 및 전망

가. 결론

■ KITA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전년동기대비 소폭(-0.8%) 감소하였으며, 무연탄 등 대북제재 품목의 수출은 급감하는 와중에 철광석이나 수산물과 같은 제재 비(非)대북제재 품목을 통해 무연탄 수출 급감의 마이너스 효과를 일부 완화하였음.

■ 2017년 북한의 수출은 급감하고 수입은 급증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수입이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단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기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기계류와 섬유품목의 수입 증가는 북한의 임가공무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광물자원에 대한 대북제재가 오히려 의류 임가공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음.

■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은 국제사회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품목 다각화 정책의 성과 부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급증은 기저효과, 대북제재 영향이 수출입에 미치는 시차, 북한 내 기축적된 외화를 활용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안정 도모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의 대중 5대 수출품목 중 무연탄은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3월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철광석(HS26)과 수산물(HS03) 품목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의류품목은 수출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대중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함.

■ 북한의 5대 대중 수입품목의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HS85(전기기기 등)와 같은 소비재 품목과 HS54(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와 같은 의류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품목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음.

나. 전망

■ 2017년 8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 이어 9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북·중 무역은 단기적으로 급감이 불가피하며,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봉사무역(서비스무역)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결의안이 해외노동자 계약갱신 및 신규파견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는 무연탄뿐만 아니라 철광석, 수산물 등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급감을 상쇄하던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하반기 북·중 무역의 급감은 불가피
- 또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5호가 통과됨에 따라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였던 의류품목의 수출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북·중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장기적으로 제재대상이 아닌 다른 지하자원을 수출하면서 상품무역 다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봉사무역 확장을 통한 외화벌이 채널 다각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노동자의 신규 파견 및 계약 연장이 불가하므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와 제2375호에 따른 영향으로 북한은 상품무역에서 2017년 연간 약 15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적자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북제재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가 북한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상품수지 이외에 북한 내부에 축적된 외화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북한은 기존에도 상품수지 적자를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자본수지 등을 통하여 보전해왔는데, 그동안 이를 통해 축적한 외화의 양과 이들 채널을 통해 향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외화의 양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좌우할 것임.
- 물론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와 제2375호에서 해외노동자 신규 파견 및 계약연장,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또는 사업의 확장을 금지함에 따라 여타 다른 수치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장형수. 201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 정명화, 이상건. 2017. 「KMI 동향분석」, Vol. 4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러시아 연방세관. <http://stat.customs.ru>(검색일: 2017. 8. 24).
- 「北 해산물 금수(禁輸) 반발, 중국 업체 보상 시위」. 『월간조선』(2017. 8. 19).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78&Newsnumb=2017081078(검색일: 2017. 8. 21).
- Indexmundi. <http://www.indexmundi.com/>(검색일: 2017. 8. 25).
- KITA. <http://www.kita.net>(검색일: 2017. 8. 21~28).
-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연호.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1/globalBbsDataList.do?setIdx=249>(검색일: 2017. 8. 21~28).